

Research Trend on Adult Suicide in South Korea

Mi Kyoung Kwon^{1#}, Ji Sun Kim¹, Sang In Nam^{2*}

¹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uncheonhyang-ro, Asan, Chungcheongnam-do, Korea

²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 Counseling,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uncheonhyang-ro, Asan, Chungcheongnam-do,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end of research on suicide among adults in Korea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n this topic. Using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 Citation Index (KCI),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79 studies related to suicide among adults were identified. Years published ranged from 2004 to 2018.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Research on suicide among adults started from 2004 and the number of publications was the largest in 2016, but since then it has gradually decreased. The most frequent research question in those studies was about the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among adults. The most frequent academic field in which studies were published was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research subjects were mostly general public samples rather than individuals at risk or individuals whose occupations are reported to have higher suicide rates. In addition, only 20 of the 79 studies belonging to the typology of the course of suicide. The most frequent methodology utilized was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ith structured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adult suicide, research trend, contents analysi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성인들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2015)에서는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20~50대 성인 3명 중 1명이 현재 행복하지 않고, 그중 우울증(28%), 불안장애(21%), 분노장애(11%)가 의심되어 전문가적 상담개입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기는 부모와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서 성인중기로 갈수록 직업생활과 사회에서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획득과 상실, 다방향성과 다차원성, 개인내적 변화 등으로 제2의 사춘기로 불릴 만큼 심리적인 위기감을 절박하게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에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The 1st author: Mi Kyoung Kwon, Tel. +82-41-530-1146, Fax. +82-41-530-1146, e-mail. maum-ahn@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Sang In Nam, Tel. +82-41-530-1515, Fax. +82-41-530-1515, e-mail. sinam@sch.ac.kr

하고 있기에(Jeong, 2016) 성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살을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4.1명, 한 해 동안 총 자살 사망자 수는 12,432명으로(Statistics Korea, 2017) 한국의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중은 44.8%이고, 30대에서도 36.9%로 2위인 암(20.7%)보다 높으며 40~50대의 경우에는 암 다음으로 자살이 높았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시도나 자살사고의 경우가 자살성공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이와 같이 성인 자살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인 자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약 6.5조원으로 이 중 20~40대인 초기성인의 손실비용은 5.2조원으로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이는 생산적 경제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의 자살이 사회경제적 손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이 맞물려 자살문제가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다양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Choe, 2009).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자살은 성공할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사후개입 자체가 어렵고, 남겨진 가족들의 정서와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살로 인해 가족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은 상처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Kim(2014)은 자살로 사별한 유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별한 유가족에 비해 심리적 고통이 더 강렬하고 복합적인 비탄의 애도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로 사별한 유가족들은 다른 사별에 비해

3배의 상실감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분노와 자살 생각 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Byeon(2014)과 Kang(2015)도 많은 유가족들이 분리와 통과 반복적 복합비에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자살 유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사회부적응 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이지만,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대처가 미숙하고 이를 다루는 방법이나 상담, 교육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Kim, 2012). WHO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자살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도 자살시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족구성원의 자살을 경험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약 6~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s cited in Jeglic, *et. al.*, 2005; Park, 2010),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유가족을 포함하여 6~8명 정도 된다고 하였다(Crosby & Sacks, 2002).

특히 대부분의 성인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확률이 높고, 배우자와 자녀를 둘 확률이 높다. 또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이 자살할 경우 자살자의 주변인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 자살로 인한 주변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YTN & YTN PLUS(2018)은 자녀인 다음 세대로까지 직접적으로 전수될 수 있고, 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 다른 유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아내의 자살위험률이 16배 높고, 아내가 자살할 경우 남편의 자살위험률이 46배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살의 부정적 영향은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경우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Nam, 2008; Kim, 2011; Han, 2012)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로 인한 후속 모방자살은 평상시 보다 2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74년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 사용한 ‘베르테르 효과’는 자살의 전염성을 일컫는 말로써 일반인들의 자살 동조 현상을 심각하게 유발시켜 똑같이 고민에 빠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적용한다고 하였는데(Bea & Tae, 2010),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대부분 성인인 경우가 많기에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인 자살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성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인과 관련된 자살 논문은 2004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의 자살 논문보다 뒤늦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자살 관련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발표되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대상에 비해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었으며, 성인 자살과 관련된 동향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성인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숙고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기존의 성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성인 자살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성인 자살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성인 자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성인 자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자살에 관한 연도별 논문 수, 발표 유형

및 학문분야,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성인 자살 연구의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성인 자살 연구의 발전적 진행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성인 자살 연구에 발전적 진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해 연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내용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0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인 자살에 대해 연구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학자들에 따라 성인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인의 연령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민법에 의하면 성인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성인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다. 그러나 Havighurst(1972)의 발달과업이론에서 초기 성인기를 만 18~30세, 중년기를 30~60세로 성인에 해당하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인은 법률적 측면과 Havighurst(1972)의 발달과업이론이 모두 포함되는 연령인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들은 학위논문 34편과 학술지 45편으로 총 79편의 논문을 연구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선정방법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검색어는 ‘성인 자살’, ‘성인’,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사고’, ‘자살 현황’, ‘자살 태도’, ‘자살행동’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성인 자살에 대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청소년과 노인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156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거쳐 최종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확인하여 성인기준인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을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 외에 다른 연령이 포함되어있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이 성인 자살에 대한 내용일지라도 연령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학교 내 상담교사와 같이 연구대상자가 성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연구는 포함시켰다.

넷째, 동일 연구자가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 발표한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위에 제시한 선정기준에 따라 학위논문 34편과 학술지 45편으로 총 79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4. 분석절차 및 방법

자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던 선행연구(Kim, et. al., 2008; Kim & Heo, 2010; Hong, et. al., 2013)들과 분류범주 선정 절차가 언급되어 있는 연구(Seon & Kim, 2007; Jo, et. al., 2010; Kim, et. al., 2019; Choi & Hong, 2019)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선정한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분류범주는 크게 기초사항(출판연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구분, 학문분야), 연구주제(성인 자살 실태 및 현상, 관련된 변인, 예방 및 개입, 척도 개발, 하위유형 분류), 연구대상(연구대상자, 자살경로별 분석), 연구방법(양적 연구, 질적연구)로 정하였다.

성인 자살의 동향분석을 위해 분류범주에 해당하는 논문편수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논문이 분류범주 세부내용에 중복되어 포함되는 경우에는 Park(2005)이 제시한 평정방법과 같이 논문 한 편당 1점씩 부여하되 한 편의 논문이 두 가지 세부내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0.5점씩 부여하고, 세 가지 세부내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0.3점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제시하였다.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평정을 실시하고 불일치가 발생한 논문은 함께 검토하고 합의한 후에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딩한 후에 SPSS 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Table 1. Classified category and details

Classified category	Details
Basics	Publication year, Thesis and academic journal, Academic field
Subject of research	Reality and phenomenon of adult suicide, Variables related to adult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suicide, Development of Adult Suicide Scale, Subtype classification of adult suicide.
Object of research	1) Object of study(General public, Specific target) 2) The course of the suicide(stress factors, negative thoughts, depression, suicidal idea, approaching suicidal tools, suicidal attempt, suicide)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수 분석

2004년에서 2018년까지 성인 자살에 관해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빈도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있다. 성인 자살에 관해 발표된 논문 수를 분석해보니, 2004~2010년까지는 1~3편 정도로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1년부터 4편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연도는 2016년으로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2000년 중반 이후부터 2011년까지 논문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10년에 연구된 논문의 수는 이미 20편 이상이였다(Chang, 2011). 노인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 자료들에서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연구된 자료만 해도 100편이였다(Hong, et. al., 2013). 즉,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들이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연구들에 비해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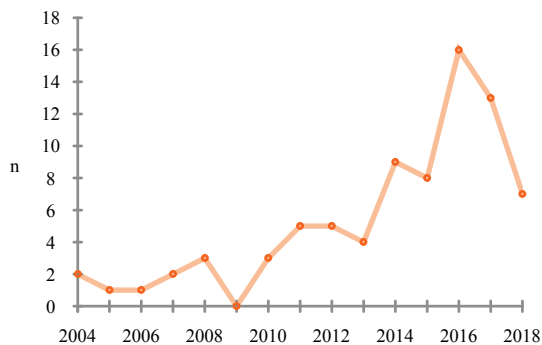


Figure 1. Number of papers by year.

한국 성인 자살의 논문을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따라 연도별로 분석해볼 때, 학위논문은 총 34편으로 석사학위논문이 28편, 박사학위논문이 6편이였다. 성인 자살에 관한 학위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2004년으로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2편이 발표되었다. 2007~2008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의 수를 보면 각각 1편씩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2005년과 2009~2011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2편 이상 발표되었다. 박사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시기는 2016년으로 4편이였고, 2010년, 2017년도에만 각 1편씩 발표 되었다.

성인 자살에 관해 연구된 학술지는 총 45편이며,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2006년으로 학위논문보다 약 2년이 지난 이후 발표되었다. 2005~2010년까지는 1~2편정도 발표되었으며, 2009년에는 학위논문과 공동되게 발표된 논문이 한 건도 없었다. 2011년도는 5편이 발표되었고, 학위논문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연도이다. 2012~2013년에는 1~2편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3편 이상의 학술지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발표된 연도는 2016년으로 9편이며, 연도별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year

Year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2004	2(2.5)	-	-	2(2.5)
2005	-	-	1(1.3)	1(1.3)
2006	-	-	1(1.3)	1(1.3)
2007	1(1.3)	-	1(1.3)	2(2.5)
2008	1(1.3)	-	2(2.5)	3(3.8)
2009	-	-	-	0
2010	-	1(1.3)	2(2.5)	3(3.8)
2011	-	-	5(6.3)	5(6.3)
2012	4(5.1)	-	1(1.3)	5(6.3)
2013	2(2.5)	-	2(2.5)	4(5.1)
2014	2(3.7)	-	7(8.9)	9(11.4)
2015	5(6.3)	-	3(3.8)	8(10.1)
2016	3(3.8)	4(5.1)	9(11.4)	16(20.2)
2017	4(5.1)	1(1.3)	8(10.1)	13(16.5)
2018	4(5.1)	-	3(3.8)	7(8.9)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2. 논문의 발표유형 및 학문분야별 분석

성인 자살과 관련해 연구한 논문 79편의 논문 발표 유형 및 학문분야별 동향은 <Table 3>와 같다. 먼저 학위논문 발표유형을 살펴보면 선정된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은 28편(35.4%), 박사학위 논문은 6편(7.6%)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더 많이 발표되었다. 석사학위 논문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니, 상담심리학이 11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사회복지학 5편, 보건간호학 4편, 신학 4편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사회정책학, 범죄학, 경찰학 분야에서 1편씩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면, 보건간호학이 2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가족학에서 1편씩 발표되었다.

학술지 논문은 45편(57.0%)으로 학위논문과 비교해 본다면, 학술지가 학위논문 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면 보건간호학이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심리학 분야도 13편으로 거의 비슷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 6편, 의학 5편으로 발표되었고, 그 외에 신학, 스트레스의학, 범죄학, 사회정책학, 통계학, 치안행정학, 여성정책학에서 1편씩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An analysis of trends by field of study

Field of study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Counseling psychology	11 (13.9)	1 (1.3)	13 (16.5)	25 (31.6)
Health nursing	4 (5.1)	2 (2.5)	14 (17.7)	20 (25.3)
Social welfare	5 (6.3)	1 (1.3)	6 (7.6)	12 (15.2)
Medicine	-	1 (1.3)	5 (6.3)	6 (7.6)
Theology	4 (5.1)	-	1 (1.3)	5 (6.3)
Etc	4 (5.1)	1 (1.3)	6 (7.6)	11 (13.9)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성인 자살에 대해 발표된 전체 연구들을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된 분야는 상담심리학으로 25편(31.6%)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간호학 20편(25.3%), 사회복지학 12편(15.2%), 의학 6편(7.6%), 신학 5편(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자살 논문이 상담심리학과 보건간호학 분야에서 45편(56.9%)으로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주제 분석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주제를 크게 5개의 주요 연구주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전체의 72.8%를 차지하였다.

Table 4. An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 of research

Subject of research	Thesis		Journal	n (%)
	Master	Doctorate		
Adult suicidal reality and phenomenon	1.5 (1.9)	3 (3.8)	5 (6.3)	9.5 (12.0)
Variables related to adult suicide	20 (25.3)	3 (3.8)	34.5 (43.7)	57.5 (72.8)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suicide	6.5 (8.2)	-	2.5 (3.2)	9 (11.4)
Development of Adult Suicide Scale	-	-	2 (2.5)	2 (2.5)
Subtype classification of adult suicide.	-	-	1 (1.3)	1 (1.3)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그 다음으로는 성인 자살 실태와 현상에 대한 연구가 12.0%로 자살생존자, 자살예방 실태, 신세대 병사, 응급실 내원 환자, 자살관련 행동 회복과정, 자살위기 개입, 자살시도 여성, 청년자살 충동, 군대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성인 자살 예방 및 개입의 연구가 11.4%로 자살충동, 통합적 상담 방안, 성경적 상담,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였으며, 성인 자살 척도 개발은 2.5%로 자살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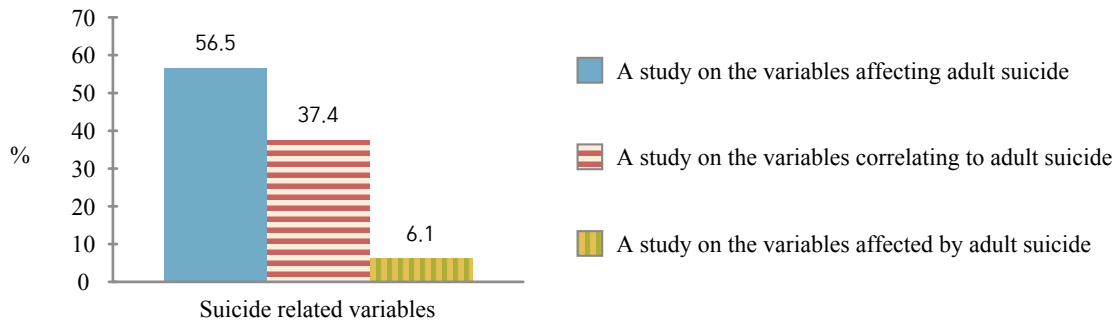


Figure 2.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adult suicide

낙인척도 개발연구였고,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류는 1.3%로 자살유형분류 연구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의 주제를 중점에 두고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분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다시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Figure 2>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서 56.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심리적 요인,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관계중독, 성별과 연령대별, 우울, 자기체계 손상, 도움관련 행동, 대인관계 문제, 신체불만족, 불안정 성인애착, 취업상태, 음주흡연, 자살생각, 고용 불안정, 완벽주의,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생활 스트레스, 미래지향, 아토피 피부염, 외상, 지역생태, 정서지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서 37.4%가 여기에 포함된다.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자기애, 자살사고, 신체활동, 심리적 부검, 자살에 대한 낙인, 도움추구, 지각된 스트레스, ADHD, 자아정체감, 부모에 대한 애착, 외상 경험자 탄력성, 가족응집력, 스트레스 취약성, 불안, 수면의 질, 심리적 특성, 자살인식태도, 결정요인, 자아존중감, 충동성, 발생시점, 우울, 생명윤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의 영향을 받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6.1%로 나타났으며 도움관련 행동, 취업스트레스, 충동성 및 자살실행력, 부적 정서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 분석

1) 성인 자살관련 연구 대상자 분석

성인 자살관련 논문의 대상자 현황은 <Table 5>와 같다. 분석한 결과 특정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은 48편

Table 5. An analysis of trends by object of study

Object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General public	ordinary person	12(15.2)	1(1.3)	18(22.8)	31(39.2)
	undergraduate	5(6.3)	-	7(8.9)	12(15.2)
Specific target	soldier	5(6.3)	-	4(5.1)	9(11.4)
	suicide-related person	1(1.3)	3(3.8)	5(6.3)	9(11.4)
	specific age	2(2.5)	-	6(7.6)	8(10.1)
	specific place	1(1.3)	1(1.3)	1(1.3)	3(3.8)
	a melancholiac	-	-	2(2.5)	2(2.5)
	inpatient	1(1.3)	1(1.3)	-	2(2.5)
	ect	1(1.3)	-	2(2.5)	3(3.8)
	n(%)	28(35.4)	6(7.6)	45(57.0)	79(100)

(60.8%)을 차지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1편(39.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과 자살자 관련인이 9편으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살자 관련인은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다. 그 다음으로 성인 중에서 특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이었고, 특정 장소를 선정하여 연구한 논문이 3편, 우울증 환자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씩이었다. 기타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아토피 피부염자, 연애 경험자였으며 1편씩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 성인 자살관련 논문이 특정 대상에서 좀 더 활발히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에서 보고한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대상자의 1위는 무직, 가사, 학생으로 전체 자살자의 45.6%(4,132명)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대상자의 연구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의 여러 일반적 특성인 거주형태, 종교, 배우자 유무, 연령대 별 차이, 다양한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 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한된 대상만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고, 자살자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적 고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자살경로에 따른 유형분석

자살경로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Bae & Woo(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살 경로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자살경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나 삶의 사건, 가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지속적이거나 강하게 받는 경우, 부정적 사고나 우울을 경험하는 수준이 되기 시작하고, 부정적 사고나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살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살 사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자살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접근하거나, 자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그 다음 단계인 자살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살계획이 자살시도로 이어지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의 제시한 자살경로이다.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대상자들이 이러한 자살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해보니, 총 79편의 논문들 중에서 20편만이 자살경로 유형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들이었으며, 나머지 59편은 스트레스나 자살시도 행동 등 자살경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문항이 없는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자살경로에 따른 유형분석은 총 20편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으며, 한 논문 안에 여러 수준의 자살경로 유형이 포함되어있어 Park(2005)의 평정방법에 따라 한 논문 당 점수는 1점으로 하되 한 논문 안에 두 가지 수준의 자살경로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0.5점씩 부여하였고, 세 가지 수준의 자살경로 유형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0.3점씩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평정방법을 사용하여 자살경로 유형에 해당하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자살경로에서 가장 많이 발표된 유형이 자살사고(생각)로 8편(3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살시도가 7편(28.8%)이 발표되었으며 자살은 4편(18.3%)이 발표되었다. 부정적 사고 및 우울도 4편이지만 중복된 논문이 있어 3.5점(16%)이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1편(4.6%)이었고,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이 1편이지만 역시 중복된 논문이 있어 0.3점(1.4%)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자살경로 유형 중에서 자살사고(생각)나 자살시도에 해당하는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는 1회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었고, 자살에 해당된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들은 심리 부검의 방식과 경찰이나 군대에서 기록된 자살사건기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이었다. 부정적 사고에 해당

하는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연구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살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가장 낮은 점수였던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 수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자살사고(생각)부터 자살시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모두 다룬 논문이었다.

구방법이 38편으로 전체 논문 중에서 48.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차자료 분석은 17편으로 21.5%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내용 분석과 문헌 연구가 7편으로 8.9%, 면담기법과 현상학적 연구는 각각 3편으로 3.8%, 근거이론과 내러티브 탐구는 2편으로 2.5%에 불과했으며 혼합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성인 자살관련 연구방법의 대부분이 설문조사나 이차자료 분석 등의 양적 연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활용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course of suicide

The course of the suicide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suicide	2 (9.1)	-	2 (9.1)	4 (18.3)
suicidal attempt	1 (4.6)	3 (13.7)	2.3 (10.5)	6.3 (28.8)
approaching suicidal tools	-	-	0.3 (1.4)	0.3 (1.4)
suicidal idea	4 (18.3)	-	2.8 (12.8)	6.8 (31.0)
negative thoughts	1 (4.6)	1 (4.6)	1.5 (6.9)	3.5 (16.0)
stress factors	-	-	1 (4.6)	1 (4.6)
n (%)	8 (36.5)	4 (18.3)	9.9 (45.2)	21.9 (100)

5.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인 <Table 7>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성인 자살 관련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성인 자살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성인 연령의 기준이 연구자마다 달랐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선정을 위해 학위 논문 및 학술지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학술정보(KISS),

Table 7. An analysis of trends by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15(19.0)	1(1.3)	22(27.8)	38(48.1)
	Secondary data analysis	6(7.6)	1(1.3)	10(12.7)	17(21.5)
	Content analysis	1(1.3)	-	6(7.6)	7(8.9)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4(5.1)	-	3(3.8)	7(8.9)
	Interview technique	1(1.3)	-	2(2.5)	3(3.8)
	Phenomenological study	1(1.3)	1(1.3)	1(1.3)	3(3.8)
	Grounded Theory	-	1(1.3)	1(1.3)	2(2.5)
	Narrative exploration	-	2(2.5)	-	2(2.5)
n (%)		28(35.4)	6(7.6)	45(57.0)	79(100)

국회도서관을 활용하여 156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79편을 SPSS 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성인 자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후속연구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의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성인에 대한 자살관련 연구가 청소년과 노인에 비해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고 적은 편이며, 논문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2016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1980년에, 노인은 1996년에 처음으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은 2004년으로 가장 늦게 발표되었다. 또한 Chang(2011)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2010년에 이미 20편 이상이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논문(Hong, et. al., 2013)의 경우에도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총 100편 이었다. 그에 비해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은 2018년까지 연도별 가장 많이 발표된 논문의 수가 16편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연구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자살 연구가 청소년 자살 연구와 노인자살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과 관련된 기관들(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성인 대상의 기관들은 한정되어 있어 연구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과 관련된 기관처럼 성인의 자살 고민도 함께 나누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성인 자살개입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인 자살의 논문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는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에서 연령대별 자살현황에 대해 살펴보니 10대는 인구 10만명 당 4.7명, 20대는 16.4명, 30대는 24.5명, 50대는 30.8명, 60대는 30.2명, 70대는 48.8명, 80대 이상은 7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20~60대도 자살

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과 성인, 노인 중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성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학생이나 군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이 자살하게 되면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더불어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YTN & YTN PLUS, 2018).

따라서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의 문제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함께 자살에 대해 마음을 나누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숙고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성인 자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성인 자살에 대해 학문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상담심리학과 보건간호학의 분야가 56.9%로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성인 자살과 관련되어 상담과 보건간호 분야가 타 분야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총 6편에 불과하여 향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외상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인 자살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인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은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복합적 원인의 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인과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의 역동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양한 다른 전공 분야의 연구에

서도 성인 자살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구주제를 크게 5개의 주요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주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전체 연구 목록에서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인 자살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어 다차원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Berk, 2005). 성인 자살이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성인 자살 실태와 현상에 대한 연구주제가 12.0%로 드러났다. 자살생존자 자살 예방 실태, 신세대 병사, 응급실 내원 환자, 자살관련 행동 회복과정, 자살위기 개입, 자살시도 여성, 청년자살 충동, 군대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제한된 성인 자살의 실태와 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태와 현상의 파악은 향후 성인 자살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인 자살의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11.4%로 드러났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인 자살의 문제에 비해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자살과 관련되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청년 실업률의 증가, 고학력화 현상, 조기 퇴직, 이혼 위기, 막중한 책임과 의무로 인한 중년기 위기감 등 성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인 자살 척도개발 연구는 2.5%로 자살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척도 연구로만 2편에 불과하였다. 척도들은 표집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분석한 것으로서, 연구에서 보다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Park, 2005), 성인 자살 연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척도 개발 연구에 대해 제한적인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류는 1.3%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나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의 상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유형화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5개의 주요 주제를 살펴 본 결과, 성인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자살의 실태와 현상, 성인 자살의 예방과 개입, 성인 자살 척도 연구, 성인 자살 하위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연구주제라고 본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다시 세 가지 하위유형인 성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인 자살의 영향을 받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성인 자살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변인으로는 자살사고, 사회적 활동과 역할, 자살 시도, 우울, 심리적 취약성, 사회적 역할, 사회적 낙인, 스트레스, 중독,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기가 사회경제 및 대인관계에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시기로서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Jeong(2016)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자살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주제들의 분석을 통해 성인 자살의 연구에서 관심과 초점이 되는 특정주제를 파악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며, 국내 연구에서 어떠한 주제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 향후 성인 자살 연구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특정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이 60.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을 대상으

로 분석한 논문은 39.2%였음이 확인되었다. 특정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자살시도를 경험한 대상이나 자살자와의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하였다. Kim(2012)은 자살자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심리적 고통과 반응의 강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는데, 자살자와의 관계에 따른 심리적인 경험과 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의 여러 일반적 특성인 거주형태, 종교, 배우자 유무, 연령대 별 차이, 다양한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 하지 않고,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제한된 대상만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의 한국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무직, 가사, 학생의 자살률이 1위로 전체 자살자의 45.6%(4,132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로 13.5%(1,218명), 단순노무 종사자가 7.3%(661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6.7%(610명)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 자살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관련 대상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자살현황과 관련되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대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자살자 관련인이나 자살 시도경험이 있는 대상자 등 자살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일반 대상에서도 좀 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중에서도 자살고위험자와 관련된 선별과 개입에 대한 연구도 추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연구대상을 Bae & Woo(2011)이 제시한 자살의 경로 과정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니, 자살경로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이 79편 중에서 20편만 해당되었다. 자살경로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수준은 ‘자살사고(생각)’와 ‘자살시도’였다. 이 수준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1회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 부분이었다. 단순히 1회 이상의 자살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 발생빈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살경로 유형 중에서 자살은 사망했음을 의미하기에 연구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심리부검에 대한 내용과 경찰이나 군대에서 기록된 자살사건기록지를 통해 심리적 원인과 자살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사고, 스트레스요인, 자살도구 접근 및 계획 순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부정적 사고 및 우울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연구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살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 수준에 있는 논문은 자살사고(생각)부터 자살시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모두 다룬 논문이었다. 이는 부정적 사고 및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생각)를 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연구(Park, *et. al.*, 2014; Cho, 2016)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Rihmer(1996)는 자살예방을 낮은 수준의 자살위험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살의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표된다면, 자살경로의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살경로로 향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자살계획 수준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살계획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접근할 확률이 높은 자살예방센터, 정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기관, 복지시설 및 복지관, 종교기관 등의 기관에서 자살위험을 사전에 선별해낼 수 있는 한국화된 성인 자살 도구의 개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제 이러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으나 자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져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에 실존적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성인 자살 개입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지법과 이차자료 분석을 활용한 연구방법이 전체 분석 대상 연구들 중 69.6%를 차지하며 양적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살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삶을 이해해야만 하는데(Nam, 2009),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일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질적 연구방법과 혼합 연구방법의 상대적인 부족현상은 향후 국내 성인 자살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인 자살 연구 진행시 연구대상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질적 연구방법들 사이의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성인 자살의 시도경험이나 자살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성인 자살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다양성은 성인 자살에 대한 치료적 대안을 세워 현장에서의 적용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 유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인 복합적 비애, 정서적 고통, 심리적 외상 등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내면의 경험과 현상에 대해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살시도를 경험한 대상자나 자살 유가족 등의 주변인을 통한 심층면담이나 추적관찰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심리적 특성에 대한 좀 더 심도있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고, 이런 성인 자살의 본질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는 향후 성인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인 자살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이나 자살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표된 성인 자살에 관한 연구는 2004년 이후 진행되어 2016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의 연구들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의 자살논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문분야별로는 상담 분야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분야별 다양성이 부족하였음이 드러났다. 연구대상은 한국자살현황(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7)에서 보고된 높은 자살률을 가진 대상자나 자살관련인에 해당하는 연구는 많이 없었고, 자살과정에 따른 유형분석에서도 자살과정에 속하는 대상자들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향후 성인 자살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성인 자살 연구가 다른 대상에 비해 역사가 짧고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인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자살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숙고할 나뉠의 장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성인 자살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삶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한된 국내 성인 자살 연구에 대한 연구 설계, 연구 분야, 대상자 선정, 연구 방법에 있어서 특정 분야 중심의 연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자살 연구에 이어 실제로 자살과 관련된 주변인, 자살유가족,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에 대해 더욱 깊이 통찰하고, 더불어 좀 더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 자살과 관련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살위험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연구와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더불어 성인 자살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심리적 개입으로 추후 성인 자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적 접근과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References

- Bae, Sang Bin and Jong Min Woo. 2011.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from Med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4): 386-391.
- Bea, Joon Sung and Tae Kyun Hur. 2010. The Roles of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Media Reports of Suicides in Social Learning Effects. *The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6(2): 179-195.
- Byeon, Jae Won. 2014. Mediating Effect of Meaning Reconstru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Complicated Grief: Focusing on Suicide Survivors, Master's Thesi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Chae, Jung Min, Soon Mook Lee, Jong Nam Kim, and Sung Won Choi. 2015. A Review and Suggestion for Korean Depression Study from Perspective of Cultural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2): 205-225.
- Chang, Eun Jin. 2011.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Study of Adolescent Suicide in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4): 171-195.
- Choe, Yun Jin. 2009.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ecentering.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 Choi, Mi Kyung and Hea Jung Hong. 2019. Analysis of Art Therapy Research Trends on Elderly Depression: Focused on Thesis from 2000 to 2017.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6(1): 163-185.
- Crosby, A. and J. Sacks. 2002.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United States.
- Han, Su Mi. 2012. The Effects of Suicide Ideation on Suicide Reports of Mass Media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School Health*. 25(1): 133-142.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ition*. New York: David Mckay.
- Hong, Si Myung, Young Sil Kang, and Heon Kyeong Kim. 2013.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in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752-5761.
- Jae, Young Myo. 2004. Suicide and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0(1): 3-10.
- Jeglic, E. L., I. R. Sharp, J. E. Chapman, G. K. Brouwn, and A. T. Beck. 2005. History of Family Suicide Behaviors and Negative Problem Solving in Multiple Suicide 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9: 135-146.
- Jo, Nam Jung, Eun Mi Choi, Hee Jin Choi, and Sun Chul Jang. 2010. Counseling Research Analysis: "Counseling Study" Journal Report Published Thesis(Focusing on 2000 to December 2009).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507-524.
- Kang, Eun Jeong. 2005.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by Age Group.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7: 81-86.
- Kang, Myung Soo. 2015. Family Counse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Suicide Survivors.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4: 9-31.
- Kim, Chang Hag. 2011. The Influence of Media Representation of Suicide on Juvenile Perception of Impulse Suicid.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 Kim, Eun H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4(24): 593-614.
- Kim, Ga Deuk. 2012. Experiences of Parents as Suicide Survivors: Sever Grief and Reconciliation. Ph.D. Dissertation. Chonbuk

- National University.
- Kim, Heon Kyeong, Kwang Ja Lee, Jung Hur, and Eun Ju Song. 2008.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and depression in Korea. *Health & Nursing*. 20(2): 62-69.
- Kim, Hyoung Soo and Pyung Hwa Heo. 2010. The Current Trend of Research on Korean Elderly Suicide and Future Research Iss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36(3): 195-212.
- Kim, Jae Won, Soon Man Kwon, and Hang Jo. 2019. Research Trends in Trauma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1-2017).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 67-91.
- Kim, Yong Bun. 2014. Research about Overcoming the Crisis and Stress of Suicide Survivors. Master's Thesis.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7. Present of Suicide Present Condition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pril 6, 2017.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 Kwon, Eun Hui.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Juvenile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Lee, Jae Min. 2014. Impact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Body Dissatisfaction on Suicidal Idea of Young Adul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5 Mental Illness Epidemiology Survey. April 10, 2019. <http://www.mohw.go.kr/react>.
- Nam, soon hyeon. 2008. A Study on Psychosocial Mechanism of Copycat Suicide among Adolescents.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9): 49-84.
- Nam, Yoon Young. 2009. Suicide in Korea: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from the Mental Health Perspective. *Studies on Life and Culture*. 11: 1-18.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A Comprehensive Plan for Mental Health for a Happy Life and a Healthy Society.
- Park, Bong Gil and Suk Kyoun Chun. 2013. Effects of Mid-life Crisis on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8: 149-179.
- Park, Eun A, Hye Chung Cho, and Jae Kyeong Lee. 2016. The Effects of Childhood-adolescence Trauma on the Suicidal Ideation in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7(3): 223-249.
- Park, Ji Young. 2010.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f a Family's Surviving Experience after a Suicide Lo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6: 203-231.
- Park, Seung Min, Chang Dai Kim, and Myung Jae Chun. 2005. The Trends and Issue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Research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2): 3-14.
- Rihmer Z. 1996. Strategies of Suicide Prevention: Focus on Health Car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9(2): 83-91.
- Seon, Hye Yon and Kay Hyon Kim. 2007. Analysis of Research in the Influence of Parents on the Adolesc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1467-1483.
- Statistics Korea. 2017. Causes of Death Statistics at Press Release in 2016. September 22, 201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26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Yook, Sung Pil. 2002.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Ph.D. Dissertation.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YTN and YTN PLUS. 2018. Famous Politician Suicide, Werther Effect Concern. 24 July, 20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72839>.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YTN, YTN PLUS. 2018년 7월 24일자. 유명 정치인 자살, 베르테르 효과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72839>.
- 강명수. 2015.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과 치료적 개입. *연세상담코칭연구*. 4: 9-31.
- 강은정. 2005. 연령계층별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 *보건복지포럼*. 107: 81-86.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 권은희. 2009.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 연구: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가득. 2012.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척(慘劫) 고통과 화해. 박사학위. 전북대학교.
- 김용분. 2014. 자살 유가족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호남신학대학교.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24): 593-614.
- 김정란, 장유정, 조항.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트라우마 (trauma) 연구동향(2001-2007). 상담학연구. 20(1): 67-91.
- 김창학. 2011.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현경, 이광자, 허정, 송은주. 2008. 노인 우울 및 자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간호과학. 20(2): 62-69.
- 김형수, 허평화. 2010. 한국 노인자살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사회과학연구. 36(3): 195-212.
- 남순현. 2008.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19): 49-84.
- 남윤영. 2009. 한국사회의 자살: 정신보건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대처. 생명연구. 11: 1-18.
- 박봉길, 전석균. 2013.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149-179.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1.
- 배상민, 우종민. 2011. 의학적 측면의 자살방지 대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지. 54(4): 386-391.
- 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 효과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79-195.
- 변재원. 2014. 내재적 종교성향과 복합비애의 관계에서 의미제 구성의 매개효과: 자살 유가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9년 4월 10일자. 2015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http://www.mohw.go.kr/react>.
- 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육성필. 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장은진. 2011. 한국에서의 청소년 자살연구 개관과 향후방향성. 미래청소년학회. 8(4): 171-195.
- 제영모. 2004. 자살과 정신 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3-10.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년 4월 6일자. 개인 특성별 자살현황.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 채정민, 이순복, 김종남, 최승원. 2015. 한국인 우울 연구를 위한 문화심리학적 고찰과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05-225.
- 최미경, 홍혜정. 2019. 노인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7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6(1): 163-185.
- 최윤진. 2009.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와 탈중심화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통계청. 2017년 9월 22일자. 2016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26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한수미.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 25(1): 133-142.
- 홍시명, 강영실, 김현경. 2013. 노인 자살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1): 5752-5761.

Received: Jul. 31, 2019 / Revised: Sep. 3, 2019 / Accepted: Sep. 9, 2019

Appendix 1. Theses analyzed

- Back, Seung Ok. 2015. Analysis of the Cause of Suicide in Youth and Christian Educational Proposal.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 Cho, Eun Hee. 2016. The Effect of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19-64 year old Adults. Master's Thesis. Chosun Nursing College.
- Ha, Jeong Min. 2017. Effects of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an, Ah Reum. 2012. Rela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Threat of Suicidal Idea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Hong, Heung Pyo. 2004. A Study for Administrations to prevent Suicide in Army.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Hong, Ji Hee. 2014. Influence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The Role of Depressive Tendency among Adults with Suicidal Vulnerability.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Hong, Ye Jin. 2015.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Jeong, Kwi Nam. 2016.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Adolescent Suicide Survivor in Adult Life.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Jeong, Hee Jeong. 2016. Analyses of the Suicidal Path of the Adults based on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Model.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ung, Hyeon Jung. 2013. An Analysis of Suicidal Risk Factors in Adults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Jung, Jae Ho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Risk Factors and Suicidal Ideation in Psychiatric Outpatients. Ph.D. Dissertation.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 Kim, Ae Hyeon. 2013. Biblical Counseling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Suicide.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Kim, Eu Na. 2018. Causes of Suicide a Soldier and Integrated Consultation Plan for Adaptation to Military service.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Kim, Heon Kyeong. 2010. Survival Experiences of Hose Who Repetitively Attempted Suicide: Getting out of the swamp.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Hyo Jin. 2018. The Relation between Stigma of Suicide and Help-seeking Attitude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Kim, Jong Cheon. 2004. Study about Suicidal Impulse of Soldiers: Focus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Kim, Jong Hyuk. 2014. The Influence of Early Adult's Impulsivity and Acquired Capability of Suicide on Suicidal Behavior: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Kim, Kwang Jin. 2018. Life Stress,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and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Kim, Myeong Won. 2012.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e Ideation: the Case of Young Adul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Kim, Soo Jin. 2016. A Narrative Inquiry into Onset and Cessation of Non-suicidal Self-injury.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o, Jeong Hee. 2018. Influence of Self-System Traumatization on Non-Suicidal Self Injury: Mediating Effect of Self-Criticism and Distress Toleranc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Lee, Kyung Eun.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uicide Attempts among Mental Handicapped Perso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Lee, Seong Eun. 2017.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Youth: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Compassion.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Lee, Young Ji. 2015. The Effect of Attitudes Suicide on the Help-related Behavior.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Park, Seon Ran.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Ryu, Seong Eun. 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ors and Suicide Attempters: An Examination of Acquired Capability of Suicidality.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Seo, Kyung Won. 2007. A Study on Suicide Incidents of the New Generation Enlisted Soldiers in the Military and Preventive Measures.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 Son, Hyeon Gyeom. 2016.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s Attitudes.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Son, Se Ri. 2017. Effects of Perfectionism on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ulthoo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Yoo, Hye Jin. 2016. Lifetim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in Adults with Full Major Depressive Disorder versus Sustained Depressed Moo.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Yoo, Young Ho. 2012. A Study on the Suicidal Accident Prevention of new Generation Soldier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You, Sang Mi. 2008. Relation to Perceived Stress, Maladaptive Perfectionism. Suicide Ideation: Focus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Attachment Styl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Youn, Sun Mi. 2016.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and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Yu, Hye Seon. 201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ults'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Comparison of Gender and Age Group.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Appendix 2. Journal articles analyzed

- An, Soontae and Han Nah Lee. 2017.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a Social Stigma Scale toward Suicidal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325-357.
- An, Soontae and Han Nah Lee. 2017.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Suicide: Acceptance of Negative Emotions and Suicide Litera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2: 95-117.
- An, Soontae and Han Nah Lee. 2017. Testing the Validity of the Shortened Social Stigma Scale for the Suicidal People: Assessing Stigma Level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45): 83-108.
- Cha, Seung Min, Tae Sung Kim, Moon Hee Gang, Myung Jin Kwon, Jeong Lan Kim, Seong Keun Wang, and Ik Seung Chee. 2011. The Association of Problem Solving Style,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Body Image Satisfaction in a Young Healthy Korean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2): 221-228.
- Chang, Eun Ryang and Sung Eun You. 2014. Resili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Adults with Traumatic Life Events: Is Resilience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 299-314.
- Cho, Hye Chung. 2018. The Determinants on the First-Time Suicide Ideation of Young and Middle-aged Adults: Comparison of Poor Group and Non-Poor Group. Mental Health & Social Work. 46(4): 63-87.
- Hong, Ji Hee and Myunghee Christine Ahn. 2016. The Influence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Suicidal Vulnerability among Adults with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ve Tendenc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7(2): 187-207.
- In, Su Hyeon and Seo Jin Jang. 2015.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Male and Female Suicide Attenda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Workshop Presentation File. 5: 233-237.
- Inumiya, Yoshiyuki. 2005. A Study on Relationship of Bioethics

- and Views of Life and Death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5-30.
- Jang, Chang Min. 2013. Theory and Practice of Suicide Crisis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ounseling Council University Student*. 3: 65-77.
- Jeon, Hyeong Jin, Koun seok Lee, Hyun Jin Kim Young Moon Lee, Jun Won Kim.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Weight-Related Attitudes and Suicidal Ideation in Adul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3(2): 114-121.
- Jung, Eun Sook and Moon Sook Shim. 2016.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by Age Group in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2): 326-336.
- Kim, Hee Youn and Paul Kyuman Chae.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Ideation, Schema,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0(1): 39-55.
- Kim, Hyo Chang.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Suicide and Suicidal Typ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1): 15-33.
- Kim, Hyo Jeong. 2011. Relations among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7(2): 132-138.
- Kim, Hyun Sook, Yun Mi Kim, and Yoon Hee Cho. 2016. Combined Influence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o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Korean Adults: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1.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8(6): 609-618.
- Kim, Jae Won and Soon Man Kwon. 2014. The Impact of Regional Employment Unstability on Suicide Rate in Younger Generat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0(2): 117-141.
- Kim, Jae Woo. 2018.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of Young Koreans: Focused on Different Patterns across Gender and Living Areas. *Locality and Globality*. 42(2): 93-126.
- Kim, Ji Young and Young Ran Yang. 2017. Effects of Atopic Dermatitis on Suicidal Ideation, Plans and Attempts in Young Adul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8(4): 504-512.
- Kim, Jong Hyuk and Sung Pil Yook.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al Behavior in Young Adults: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3): 787-808.
- Kim, Jong Im, Sun Ok Han, Hye Sun Yoon and Ji Hyun Lee. 2008. Relationship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ths: Focus on Auxiliary Policeme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1): 107-113.
- Kim, Min Jung, Soo Hyun Kim, and Kyo Heon Kim. 2015. Effects of Negative Emotion Experience and Suicide Ideation from Traumatic Events on Subjective Well-being: Moder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249-270.
- Kim, Shin Hyeong, Chul Soo Park, Bong Jo Kim, Cheol Soon Lee, Bo Seok Cha, Dong Yun Lee, Ji Yeong Seo, Jae Won Choi, In Young Ahn, and So Jin Lee. 2017.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xiety, and Sleep Q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a City.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4(1): 55-61.
- Kim, Yun Jeong and Hyun Jung Kang. 2011.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Adults'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45-61.
- Lee, Dong Yun, Cheol Soon Lee, Chul Soo Park, Bong Jo Kim, Bo Seok Cha, So Jin Lee, and Ji Yeong Seo. 2012. Relationship among Adul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epression and Suicide Idea in Korean Soldi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8(2): 209-215.
- Lee, Dong Yun, Cheol Soon Lee, Chul Soo Park, Jin Wook Sohn, Bong Jo Kim, Bo Seok Cha, and So Jin Lee. 2011. Study of Relation Among Stress, Adul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and Suicide Idea in Conscrip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2): 250-256.
- Lee, Hey An, Su Yeon Shim, Young Ae Yang, and Myung Ho Lim. 2016.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291-299.
- Lee, Jae Min, Jeong Lan Kim, Seong Keun Wang, and Ik Seung

- Chee. 2014. Impact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Body Dissatisfaction on Suicidal Idea of Young Adults. *Anxiety and Mood*. 10(2): 163-169.
- Lee, So Young. 2014.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1): 71-86.
- Lee, Soo B, Yong Mea Song, Hyun Ok Lee, and Yoon Joo Choi. 2016. A Study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Suicide from a Gender Perspective - Mediated Effect of Gender Roles Awarenes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1: 487-520.
- Lim, Kyung Eun. 2010. A Study on the Suicidal Ideation of Young Adults Based on the 2009 Internet Society Survey.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3(3): 545-558.
- Nah, Gi Hoi and Gyu Seog Han. 2016.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Soldiers who Experienced Suicide-related Behavior before Joining The Arm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4): 589-615.
- Park, Eun A, Hye Chung Cho, and Jae Kyeong Lee. 2016. The Effects of Childhood-adolescence Trauma on the Suicidal Ideation in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7(3): 223-249.
- Park, Hee Jung, Eun Hee Park, Duk-In Jon, Han A Jang, Myung Hun Jung, Na Rei Hong, and Hyun Ju Hong. 2014. Impact of Dep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uicidal Ideation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5(3): 107-113.
- Park, Hyo Mi and Hea Shoon Lee. 2013. Influencing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the Korean Middle Age.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4): 323-329.
- Park, Mo Ran, Suw Han Kim, and Sung Eun You. 2015. Coping Flexibility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Attempt among Adults with Physical, Sexual Trauma Histor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1): 155-171.
- Park, Su Jin Park and Jong Nam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877-908.
- Park, Sun Woo. 2017. The Effect of Dance Education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Women.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5: 289-302.
- Ryu, Seong Eun and Sung Eun You. 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Suicide Attempters from Ideators: An Examination of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nd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589-603.
- Shin, Hwan Pan. 2007. Suicide in the Korean Young Adulthood: Special Features and Dialectical Behavioral Treatment's Intervention. *University and Mission*. 13: 78-90.
- Son, Hyeon Gyeom and Gye sook, Yoo. 2016.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s Attitudes. *The Women's Studies*. 91(2): 37-71.
- Yi, Myungsun and Soon Chan Hwang. 2011. Feminist Phenomenology on the Life Experiences of Young Korean Women with Attempted Suicid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3(2): 123-134.
- Yoon, Min Jae. 2008.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Military Culture and Suicide Accidents in Korea. *Discourse* 201. 11(1): 165-193.
- Yun, Woo Suk. 2014. Articles: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y's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 and Ideation about Suicide.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8(1): 163-193.
- Yun, Woo Suk. 2016.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3(1): 95-118.

한국 성인 자살 연구의 동향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성인 자살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9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자살 연구는 2004년 이후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가장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는 점차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학문분야별로는 상담심리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실제 자살률이 높은 대상이나 직업군들 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들 중에 자살 경로과정에 따른 유형에 속하는 논문은 총 79편 중에서 20편만 진행되고 있었고,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인 자살, 연구 동향, 내용 분석

Profiles **Mi Young Kwon** : S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 in psychotherapy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After completing Ph.D. coursework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she worked as a psychotherapist at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Now she serves not only as the head of the Maum-ah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but also crisis management consultant for various groups including the Asan C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suicide risk counselors, the Central Psychological Testing Center, and suicide victim family counselors. She is interested in crisis interventions such as suicide and abuse(maum-ahn@daum.net).

Ji Sun Kim : S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 in Education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is a researcher at the Soonchunhyang Youth Research Center. She majored in youth counseling and she main interests are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suicide(rlawltms@naver.com).

Sang In Nam :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in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has received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Iowa at the department of Counselor Education in 1993. His major concern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youth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counseling supervision(sinam@sch.ac.kr).